

# 신재생에너지 도민 공감대 확산 박차

### 전남도 10일까지 온오프라인 교육 전문가 기후 위기 대응 등 강좌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동참 유도

전남도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 주민 참여가 필수라고 판단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정보 제공, 에너지전환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최근 개강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교육은 전남도가 주최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하며, 빛가람발전협동조합이 수행한다.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이 중요

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기후위기대응,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에너지전환의 의미, 에너지전환과 사회적경제, 자원순환, 기후위기 먹거리 전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등이다.

기후위기 및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도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11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한다. 교육은 이론교육 6회, 현장교육 2회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한다. 강사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꾸리고, 현장교육 시에도 활동비를 지원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평이다. 오프라인 교육은

나주 빛가람동의 스페이스코워 전남혁신점에서 진행하며, 온라인 교육은 신청자에 한해 화상회의 전용플랫폼 줌(ZOOM)으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www.jeonnam.go.kr), 녹색에너지연구원 누리집(www.ge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빛가람발전협동조합에서 접수하고, 신청서는 이메일(wesky69@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김정섭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교육을 통해 도민 인식개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도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테크노파크 '전남 지식재산 페스티벌'



(재)전남테크노파크(사진) 전남지식재산센터가 8일 오후 1시부터 특허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1년 전남 지식재산 페스티벌'을 온라인 유튜브로 개최한다. 지식재산페스티벌은 지역의 지식재산관련 모든 성과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지역 유일의 지식재산 행사이다. 'e-RUN 라이프, e로운 지식재산(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재산)'이라는 주제로 특허청과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식재

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가 공동 주관한다.

전남테크노파크 유동국 원장은 '전남지식재산페스티벌은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지역 유일의 지식재산 행사이다'며 "전남 지식재산 페스티벌을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지식재산의 잠재력과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해상풍력 발전방향 모색

### 전남도·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도가 지난달 28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함께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남 해상풍력 정책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이날 김덕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실장은 기초발전에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 해상풍력 발전방향'을 주제로 산업단지 구축과 레저·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산업 공존 및 주민과의 상생 등을 제안했다. 전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민간자금 등 48조5000억원을 투입해 신안군 해상에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평생교육진흥원

### 하반기 장학생 450명 선발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전남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인재육성 장학생'을 선발한다. 선발인원은 총 14개 분야 450여 명이다. 아릅드리 90명, 희망나래 300명, 특별지정 60여 명을 선발해 1인당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총 4억8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11월 10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대학생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nt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올 상반기 781명에게 6억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취업 준비가 어려운 대학 졸업생들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5600여명에게 33억6000만원의 '희내라! 희망전남 장학금'을 지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산림자원연구소, 동백 함암효능 특허등록

### 구강암세포 억제효과 확인

### 산림바이오 소재 발굴 탄력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전남에 분포하는 비교우위 난대수종으로 전남도화인 동백나무의 미성숙 열매에서 함암효능을 밝혀내고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특허는 동백나무 열매가 성숙하기 전인 7월 열매를 수확한 후 씨앗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남은 과피의 함암효능을 실험한 결과 구강암세포 억제효과가 있는 것을 밝혀내 이뤄진 것이다.

구강암은 이비인후과 암 질환 중 갑상선암 다음으로 가장 흔한 암이다. 조기 발견이 가능함에도 5년 생존율이 30%에 불과하다.

구강이 사람의 생존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위이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함을 심각한 편이고, 이미 진행된 구강암은 예후가 좋지 않아 수술 후 항암치료를 같이 하더라도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동백나무는 난대 상록활엽수로 조경수 및 관상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전국의 51%가 전남에 자생하고 있지만 종자유를 활용한 향장 분야로의 산업적 이용이 대부분이다. 동백 종자 과피를 대상으로 한 함암연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천연함암원료의 공급원 등 식의약 분야에 기여하게 됐다.

오득실 소장은 "전남 비교우위 자원에 대한 기능성분 규명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의 산업적 활용과 함께 새로운 산림바이오 소재 발굴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동백열매와 열매의 기능성분 연구 외에도 도내 동백숲을 대상으로 피톤치드 등 공기질 분석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안도 약산 등 해안지역 동백숲의 공기질을 조사 분석한 결과,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는 알파피넨 함량이 가장 높았고, 피부질환에 탁월한 베타피넨, 방충작용을 하는 리모넨, 항염작용을 하는 베타시민 함량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자치경찰 지역 맞춤형 정책 자문단 뒀다

### 3개 분과 전문가 30명 위촉

### 도민 다양한 의견 수렴 정책 제안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 정책자문단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등 3개 분과로 운영하며 각계각층 전문가 30명이 참여했다. 정책자문단장은 정순관 순천대 교수가 선임됐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주요 시책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지난 27일 열린 첫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순관 단장이 좌장을 맡고 이상훈 대전대 교수가 '자치경찰 100일의 평가와 주민주권의 실현방안' 주제 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자치경찰사

무에 대한 시도경찰청의 주민 지향적 정책 수립과 집행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협력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유숙영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 김계옥 광주전남연구원 박사, 김은숙 목포YWCA 사무총장, 권재영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안전관리처장 등 5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전남형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이란 비전 실현을 위해 도민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자문단은 반기별 정기회의와 수시 임시회, 서면 자문 등을 통해 주민 밀착형 시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50% 지원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긴급 민생지원을 위해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내 대상자는 1만5000여명으로,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 근로자가 없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해 폐업 및 산업재해 시 생계안정과 재기를 돕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 질병 등으로 폐업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4~7개월간의 실업

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의 50~100% 혜택을 볼 수 있다. 산재보험은 운수업, 건설기계업, 음식점업 등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에서 가입자가 많고, 진료·간병비, 휴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납부액 중 사업주 부담액의 20%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고용유지에 힘을 보탠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Card **비** **뱅크**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H가성비 **국** **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 상무동지점 062)372-3741~2
- 용산지점 062)526-0222~3
- 지평지점 062)381-8212~3
- 쌍촌지점 062)381-6551~2
-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 화정지점 062)372-0421~3
-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 유동지점 062)512-1984~5
- 농성지점 062)361-4472~4
- 동림지점 062)513-8521~3
- 유덕아니로마트 062)373-3235
-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 운암지점 062)527-3295~6
- 유덕지점 062)373-3235~6
- 아니로마트점점 062)511-2901~3
- 동운지점 062)528-2640~2
- 비틀지점 062)381-1971~2
- 운천지점 062)371-2772~3